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4

10년만에 메이저 도약 로펌 지평의 성공비결



표지인물 지평 성공신화 이끈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주영 변호사가 꿈은 투자자 피해소 10선
'세계 9위' 김앤장 조세팀의 경쟁력



ISSN 1976-488X 정가 11,000원

(주)리걸타임즈



22 커버스토리

지평 변호사들의 미래 발전구상
 “세상 어디에도 없는 Only One 로펌 만들자”

13 CLOSE UP

- “내게 맞는 변호사 찾아보세요”
- 2013년 변호사 1명당 4억 벌었다
- “조세불복소송, 유전승소 무전패소”

16 픽플

- 재개발 · 재건축 전문 정주현 변호사
 “전국의 가로등 LED등으로 바꿔드려요”
- 러시아 전문 이화준 변호사의 긴급진단
 “우크라이나 사태, 한국 기업에 호재 될 수 있어”

32 포커스

- 서울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존재한다”
- 베이비붐 세대 범죄율 높다

48 로펌 IN

- 김앤장, 아태 로펌 6위 선정
- 베이커앤맥켄지 25.4억\$ 벌었다
- 스티븐슨 하우드 서울사무소 설립인가
- 법무법인 세창 ‘세월호 보상’ 정부 자문
- 김앤장 사회공헌위 해외 문화재 환수 지원

80 데스크 칼럼

“당신도 변호사예요?”

8 NEWS & BRIEF

- 새 대법관에 권순일 차장 제청
- 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 광장 합류
- 안경환 교수, ICJ 위원 선임
-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씨 발령
- 최봉태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 법관, 한 지역 근무 7년까지만
- “북한이탈주민, 북한 배우자와 이혼 가능”





벤처자문에서 메이저 로펌 도약
지평 변호사들의 미래 발전구상

“세상 어디에도 없는 Only One 로펌 만들자”

2000년 4월 서울 삼성동의 테헤란밸리에 서울법대 동기인 양영태, 임성택 변호사 등 10여명의 젊은 변호사가 새로 로펌을 설립하고 지평이란 간판을 내걸었다. 14년이 지난 지금 범무법인 지평은 한국 로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8월 현재 변호사 137명을 포함한 전체 전문인력은 약 150명.

전문인력 150명 포진

변호사수를 기준으로 치면 한국에서 여덟 번째로 큰 메이저라고 할 수 있지만, M&A와 금융 등은 리그테이블의 순위가 이보다 몇 단계 앞으로 올라가고, 중국과 동남아 등의 해외 업무는 한국 로펌 중 가장 활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

큼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지평은 실력과 함께 합리

적인 변호사 보수로 기업 등 의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외국 로펌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으레 들러 제휴를 타진하는 한국의 인기 로펌이 지평이다.

창립멤버이자 매니징 파트너로 지평을 이끌고 있는 양영태 대표변호사를 만나 지평의 성공비결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변호사 경력 20년, 나이 오십줄에 접어든 그이지만 2시간의 인터뷰 동안 말을 끊지 않으면 질문할 틈이 없을 만큼 쉼 없이 지평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그런 에너지가 오늘의 지평을 있게 한 원동력 중 하나일 것이다. 또 14년의 초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평이 여전히 성장에 목말라

있다는, 지평의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평의 성공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 우선 젊은 주니어 변호사들이 모여 대형로펌으로 성장한 유일한 사례다.

6년차 변호사가 최고참

“그렇다. 당시 세종에서 독립한 10여명의 창립멤버 중 변호사 6년차인 내가 제일 고참이었다. 그리고 지금 지평의 주요 팀을 맡아 맹활약하고 있는 임성택, 김상준, 박용대, 배성진 변호사가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당시만 해도 2~3년차밖에 경력이 안 된 주니어들이었

다. 오래가기 힘들 것이라고 주변에서 우려도 많이 했는데 패기와 투지 하나로 버

범무법인 지평

텸다. 하나 더 든다면 비록 연조는 낮지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일당백(一當百)의 변호사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서울법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임 변호사는 나와 세종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지평의 창립을 주도했고,

“ M&A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약정보수 외 보너스 없어주어 ”



“ 순혈주의만 강조해선 성장에 한계 지평의 정체성과 철학 유지하면서 한가족된 변호사들과 시너지 높여 ”

배성진 변호사는 연수원 1년차 차석으로 세종의 일원이 되었다가 함께 지평 설립에 참여했다.”

처음에 테헤란밸리에서 벤처기업을 겨냥했는데, 벤처기업 자문이란 뚜렷한 방향을 설정한 것도 효과를 본 것 같다.

“일종의 니치 마켓(niche market)을 공략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 벤처 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외자유치, M&A, 국제거래, 금융, 지적재산권 등 벤처기업들이 직면한 법무수요가 상당했다. 여기서 틈새를 발견해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지 못하는 이들 벤처기업들에게 지평 변호사들의 실력있고 성의있는 자문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당시 벤처투자를 많이 한 KTB와 KTIC, 우리기술투자 등 벤처캐피탈과 네이버, 엔씨소프트 등이 지평이 설립 초창기에 자문해 신뢰를 얻은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KTB, KTIC 등에 자문

니치 마켓을 설정해 공략한 전략도 탁월했지만 무엇보다도 지평이 설립초기부터 발빠르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평 변호사들의 우수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양 대표가 일 잘해서 칭찬을 받은 성장 초기의 일화 몇 개를 소개했다.

하나는 지평 설립 두 달 만인 2000년 6월 한 독일 기업을 대리해 국내 펌프 회사를 인수한 M&A 거래. 제안서를 내자문 로펌으로 선정된 지평이 어쩌나

일을 잘 했는지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이 독일 고객이 약정보수에 더해 자진해서 보너스를 얹어주었다고 한다. 또 대형로펌에 맡겨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다가 결국 파산하게 되자 비용절감을 위해 고문 로펌을 지평으로 옮긴 한 건설회사와의 인연도 지평 변호사들이 자주 얘기하는, 설립 초기에 성공적으로 자문한 사례 중 하나. 대형로펌만 상대하다가 지평의 자문을 받게 된 이 회사의 법무팀 관계자가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가 몇 번 일을 해보더니 “MRI 찍듯이 의견서를 잘 쓴다”고 극찬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이후 지평의 주요 고객이 되었다.

“MRI 찍듯이 의견서 쓴다”

지평은 설립 이듬해인 2001년 곧바로 신입변호사 층원에 나섰다. 물론 벤처기업 자문을 통해 고객과 사건이 나날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평의 공채 1호는 사법연수원과 공군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2001년 합류한 연수원 27기의 김지홍 변호사.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는 특히 대학입학시험 전국 수석, 법무관 임관순위 1등이었던 재원으로, 대형로펌의 영입 제의를 마다하고



이공현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지평에 합류해 화제가 되었다.

또 경력 변호사의 합류도 이어져 인권문제 전문가이자 나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도 추천된 조용환 변호사가 2001년 초 가세하는 등 지평의 성장에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무렵 지평은 앞으로의 성장과 관련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다. 부티크(boutique) 로펌이 아니라 폭넓게 업무분야를 취급하는 종합로펌을 지향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당시에 벤처 자문을 표방하며 테헤란밸리로 모여든 다수의 로펌이 노동, 기업 법무 전문 등 부티크로 특화해 규모는 작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전문 로펌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지평은 이들과 달리 종합로펌을 발전방향으로 설정하고 변호사를 꾸준히 늘려가며 업무분야 확대를 추구했다.

양 대표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종합성이 함께 있어야 해 처음부터 업무분야를 넓게 포석했다”며 “벤처기업 자문 외에 소송, 건설·부동산, M&A, 금융·증권 등의 영역으로 분야를 넓히고 고객을 적극 개척했다”고 소개했다.

지평의 이런 결정은 이후 ‘원칙에 입각한 개방성과 유



법무법인 지평의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세이제강-伊 강관업체 인수 자문 산은 PEF 대리 加 광구 지분투자 수행 ”

연성’으로 압축되는 지평의 철학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것이 지평을 메이저 로펌으로 이끈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2008년 지성과 합병

지평이 메이저 로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사건 중 하나가 6년 전인 2008년에 성사된 법무법인 지성과의 합병이다. 양영태 대표는 “합병을 통해 규모 여덟번째



박영주 변호사



정원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박형삼 변호사

“ 다른 로펌들 북경으로 달려갈 때 상해사무소 열고 중기 지문 자처 ”

의 로펌으로 뛰어오른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변호사들을 갖추게 되어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로펌이 순혈주의만 강조해선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평의 고유한 정체성과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새로 합류한 변호사들과 얼마든지 한 가족이 되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한 것이 큰 수확이었다”고 말했다.

지평과의 합병 이후 일부 변호사들이 합병호에서 내리기도 했지만 지평은 이후 더욱 유연하면서도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 검사 출신의 영입에도 꾸준히 공을 들여 2011년 이공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합류한 데 이어 1년 후엔 김지형 전 대법관이 한식구가 되어 후배들을 지휘하고 있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윤현주 전 부장판사와 이홍재 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가세하는 등 지평의 인적 구성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이 일본 기업 지문을 겨냥해 올 초 일본어로 발간한 '미얀마 외국인투자 법제와 실무'

지평은 크게 소송, M&A 등 회사법 지문, 금융, 해외업무의 4개 파트로 업무분야를 나눈 가운데 30개가 넘는 전문팀을 가동하고 있다. 이공현, 김지형, 조용환, 임성택 변호사를 위시해 50여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소송 분야의 경우 소송 잘 하기로

위낙 정평이 나 있으며, 블룸버그 집계 올 상반기 지문실적에서 6위를 차지한 M&A 분야는 특히 크로스 보더 M&A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봄 세아제강을 대리해 이탈리아의 특수강 강관업체 인수에 성공했고, 지난해엔 산업은행 자원 PEF를 대리해 캐나다 광구 지분투자를 수행했다.

크로스 보더 M&A 두각

또 30여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금융 분야도 프로젝트 파이낸스(PF)와 인수금융, 구조화금융, 파생상품, 금융규제,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등 업무분야가 더욱 세분화되며 높은 경

쟁력을 발휘하는 분야. 론(loan) 업무나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문은 대형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평은 업무분야의 확대에 있어서도 후발주자로서의 단순한 추종이 아닌 '차별화된 지평만의 전략'을 구사했다. 지평의 또 다른 성장엔진 중 하나라고 일컬어질 만큼 지평 변호사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성공적인 해외



정정태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한승혁 변호사

진취적 자세 돋보이는 양영태 변호사 한국 로펌업계 차세대 주자 유명

지평의 초고속 성장을 이끈 주역 중 한 사람인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요즘 동기들이 한창 드고 있는 서울법대 82학번으로 대학을 마쳤다. 원희룡 제주지사와는 대학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막역한 사이로, 사법시험도 같은 해에 나란히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녔다. 두 사람은 또 연수원 2년차때 나중에 사시 준비생들의 필독서로 인기를 끈 1200쪽 분량의 "주관식 헌법"을 함께 펴내 수험서의 저자로도 유명했다. 양 변호사는 "후배들에게 헌법 교과서 저자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던 터라 나중에 지평의 신입변호사를 뽑을 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와 헌법교과서 공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한 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로펌 변호사가 되자 금방 두각을 나타냈다. 소송과 중재, M&A, 국제거래 등 기업법무의 다양한 분야에서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활약했다.

또 로펌 운영에 있어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한국 로펌업계의 차세대 주자 중 한 사람으로 자주 거론된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항상 웃는 모습의 낙천주의자인 그는 특히 로펌 운영에서 민주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그의 철학은 지평의 전통과 문화로 고스란히 남아 탄탄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생각에 공감하는 후배변호사들이 잇따라 합류해 오늘의 지평을 일구어냈으며, 대기업 등 지평의 고객 중에도 공익적인 자세를 지향하는 지평의 팬이 많다고 한다.

민주성, 윤리성 강조

또 하나 양 변호사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는 프린티어 정신이 돋보이는 진취적인 자세. 고비 때마다 과감한 결단으로 인재를 초빙하고, 업무분야를 확대하며 지평의 발전을 이끌었다. 또 사안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 후배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고 지평의 한 변호사가 얘기했다. 양 변호사가 미안마를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미묘한 경쟁관계를 감안할 때 결국 미안마가 미국 등의 지원 아래 개방의 길을 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찌감치 미안마 사무



소를 준비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그는 또 하나로 합치자는 여러 대형로펌의 러브콜을 물리치고 베트남으로 찾아온 강성 변호사와 얘기해 규모와 성장과정이 비슷한 지성과의 1대1 합병으로 규모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버렸다.

양 대표는 요즘 지평 후배들에게 재미와 열정을 많이 강조한다고 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은 재미있어야 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변호사와 스태프 등 전체 직원 300명의 조직으로 규모가 커진 지평은 양 대표의 제안으로 내부에 문화소통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양영태 변호사는 누구...

- 용산고, 서울법대 졸업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민변 사무차장
- 법무법인 지평 설립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이사

“ 법률서비스 수출, 일 기업 지문 동남아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

진출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한국의 대형로펌들이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해외사무소 운영에 소극적인 가운데 지평이 활발하게 여러 개의 해외사무소를 가동하고 있어 더욱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사무소 7곳 운영

7개의 해외사무소를 가동하는 지평의 해외진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양 대표는 먼저 철저한 시장조사를 강조했다. 2007년 문을 연 상해사무소가 대표적인 경우로, 지평은 당시 북경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던 한국의 다른 로펌들과 달리 상해에 사무소를 열고 중국 화동지역의 한국 기업들을 공략했다.

양 대표는 “북경에 본사를 두고 자체 내에 많게는 수

십명의 중국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 중국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대기업과 달리 상해 지역은 외부 로펌의 도움이 절실한 한국의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이라며 “지평의 상해사무소가 이들을 도와 중국내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5월 이후 2년여만에 180건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 미안마 사무소는 지평이 일찌감치 문을 열어 선착의 효과를 누리며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 등으로 고객층을 다변화한 사례. 180건 중 약 50건이 일본 기업에 자문한 사건으로 일본 로펌 중에도 미안마에 사무소를 연 곳이 적지 않지만, 일 기업들이 지평에 일을 맡길 만큼 지평 미안마 사무소가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일 기업 사건 50건 처리

“한 번은 일 기업의 미안마 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자문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이 기업의 동남아본부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들이 직접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일종의 프리젠테이션을 했죠. 이

젊고 파이팅 넘치는 지평의 파트너들 지평 성장 가능성 로펌 업계 주시

지평의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평의 우수한 맨파워를 빼놓을 수 없다. 수십명에 이르는 지평의 파트너들은 로펌 입사때부터 대형로펌에서 눈독을 들였던 유능한 자원들로, 실제로 세종, 김앤장 등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로펌의 파트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파이팅이 넘치는 게 지평 인적 구성의 특징이자 강점. 로펌 업계에선 이런 점에서도 지평의 성장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공동창업자이자 소송파트장인 임성택 변호사가 지휘하는 건

설 · 부동산소송팀엔 박영주, 강원일, 정원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북한법, 장애인인권 분야에서도 유명하며, 정원 변호사는 재개발 · 재건축 사건을 많이 한다.

임성택 변호사, 북한법 유명

박용대, 배성진, 김지홍, 이상윤, 김영수 변호사 등이 팀을 이룬 금융소송팀에선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가 관련된 분쟁과 회사경영권 분쟁 등에서 많은 승소사례를 만들고 있다. 배성진 변호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수천 억원대의 다수의 선박편도 분쟁에서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좋은 성과를 냈으며, 김지홍 변호사는 선물 주문실수와 관련하여 수익자측을 대리하여 착오 취소가 불가하다는 최초의 승소 판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최근에는 착오자측을 대리하여 거래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 또 한 번 승소했다.

IP/IT · 엔터테인먼트팀에선 대한변협 교육이사인 최승수

후 이 기업은 지평의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양 변호사는 “일 기업을 겨냥해 올 초 일본어로 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제와 실무’를 발간하고, 일본 현지에서 미얀마 투자에 관한 세미나도 이미 두 차례 개최했다”고 소개하고, “미얀마에서처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일본어 투자 가이드 발간 등 일 기업 공략에 적극 나서려 한다”고 이야기했다. 일종의 법률서비스 수출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업무 개척에 자신감을 얻은 지평은 고객기업의 다국적화

“ 양영태 변호사, 1년간 베트남 시장조사
배지영 변호사, 영국서 이슬람법 공부 ”

를 발전방향의 하나로 중시하고 있다.

그가 이번엔 현지사무소의 업무와 경영을 책임질 역량 있는 변호사의 파견을 해외사무소 성공의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로, 지평에선 이미 동남아 전문인력이 두텁게 양성되고



김지형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이홍재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정철 변호사

변호사와 박영주, 이소영, 최정규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보아’ 주연의 할리우드영화 ‘메이크 유어 무브’의 투자 및 배급계약 등의 자문도 지평이 했다.

공정거래 사업자 대리 늘어

올 상반기 자문실적 6위에 랭크된 M&A 분야는 회사법 분야의 파트장인 김상준 변호사와 이근동, 정철, 장운정, 류혜정, 이태현 변호사 등이 자주 이름을 올린다. 또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웰컴 공정거래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해 승소한 공정거래팀은 김상준, 박형삼, 김지홍, 이병주 변호사와 공정위에서 경력을 쌓은 장항석, 진연수 고문 등이 포진하고 있다. 금년 들어 사업자 대리가 부쩍 늘었다. 금융 분야도 이행규, 강울리, 최진숙, 이승현, 김혜라 변호사 등 쟁쟁한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행규, 채희석 변호사는 라오스 한상(韓商)기업 코라오 등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

등 IPO 업무를 다수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PEF 업무를 많이 처리한다. 지난해 말 김앤장을 거쳐 SC은행 법무팀장으로 활약한 심희정 변호사가 합류해 금융규제 분야가 대폭 보강됐다.

정철, 한승혁, 명한석 변호사 등 활약

지평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해외분야엔 해외사무소를 포함해 약 40명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다. 또 본사에도 지역별로 해외팀을 구성, 해외사무소와 연계해 높은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미얀마팀의 정철 변호사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업무에 밝은 한승혁 호주 변호사, 중국 화동정법대로 연수를 다녀온 중국통의 명한석 변호사,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MGIMO)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딴 채희석 변호사와 이승민 러시아 변호사 등이 많이 활약한다.

“ 규모 8위 보고 지평 선택한 것 아니라
우리 고유의 강점 가진 로펌 만들어야 ”

있다.

양 변호사의 따르면, 한 번 현지에 부임하면 임기를 채우고도 본사로 복귀하지 않으려는 변호사가 적지 않아 본사에서 해외사무소에 빈자리가 나갈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베트남의 호치민에 상주하는 정정태 변호사는 3년의 임기가 지났지만 현지의 고객 기업들도 원하고 본인도 베트남을 좋아해 본사 복귀를 포기하고 베트남에 눌러앉은 경우. 또 상해사무소의 최정식 대표도 8년째 상해에 상주하며 상해시민이 다 된 상황이다. 캄보디아 프놈펜사무소에 이어 초대 미얀마 사무소장으로 활약하며 동남아에서만 7년간 근무한 유정훈 변호사는 올 초 일본으로 연수를 떠나 일본어 공부와 함께 일 기업 네트워크를 열심히 확장하고 있다.

배지영 변호사 이슬람법 공부

요컨대 해외업무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하게 수요를 따져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투입해 고객의 신뢰를 담보해 온 것이 지평의 성공비결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실용적인 자세는 변호사들의 해외연수 다각화로 이어져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꼭 미국

로스쿨의 ILM만 고집하지 않고, 연수국가를 폭넓게 선택하고 있으며, 지평에선 대학이 아니라 직접 현지 로펌에 사무실을 얻어 실무를 접하고, 자유롭게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방안도 적극 권장한다. 베트남에서 1

년간 거주하며 동남아 시장조사로 해외연수를 대체한 양영태 변호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영국으로 연수를 떠나 이슬람법을 공부하고 있는 배지영 변호사는 공부가 끝나는 대로 중동 로펌으로 옮겨 직접 현지 경험을 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평은 얼마 전 2020년까지 '구성원과 고객이 함께 행복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로펌'을 만들고 매년 인원 10% 증가, 매출 20% 성장을 목표로 정한 'VISION 2020'을 수립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0년 지평의 변호사수는 약 250명 규모로 늘어난다. 그러나 더 이상 변호사수로 표현되는 규모의 순위에는 신경쓰지 말자는 게 지평 변호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한다.

“우리가 대형로펌 마다하고 지평에 온 것이 규모 8위의 로펌을 택해 온 것이겠어요. 우리만의 고유한 강점을 가진 로펌을 만들어야죠.”

양영태 대표가 후배들의 얘기라며 그들의 주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온리 원(Only One) 로펌', 지평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온리 원 로펌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평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채워야 할 그들의 몫이다. ■

김진원 기자



심희정 변호사



이근동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